

2024. July

통권

제152호

발행인 백일현 | 발행일 2024년 07월 30일 |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김 희 진 선임연구위원

한 지 형 전문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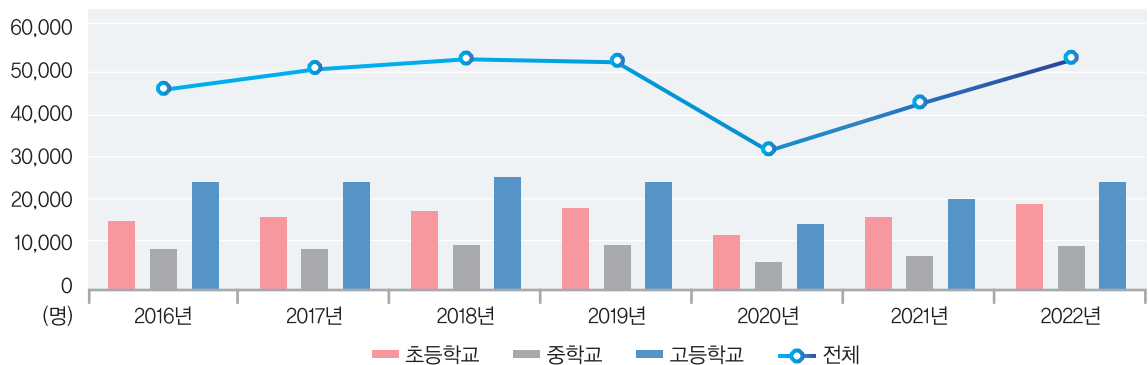
### 요약<sup>1)</sup>

-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둬에 따라 경험하는 취약성, 특히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저해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불리함과 어려움을 파악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규모 확인을 위한 행정통계 검토와 권리기반 접근과 같은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으며, 2021년에 수행된 전국 규모 조사인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음.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경험 정도와 연령대에 차이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 3개 집단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이들이 경험한 취약성과 어려움, 극복요인, 지원 경험 등을 파악하였으며,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조사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 실무자 대상의 2개 집단 FGI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취약성 및 현안 진단, 정책과제 의견수렴 등을 수행하였음.
- 이러한 연구수행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성으로 ① 학교 밖 청소년의 전인적 건강 및 성장 지원 우선, ②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기반 맞춤형 지원, ③ 직업역량강화 이전 진로개발역량 우선 강화, 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정체성·방향성 검토, ⑤ 학교안팎 청소년의 동일한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제안하고,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내용, 전달체계, 환경적 차원 3개 영역의 12개 정책과제와 22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3년 고유과제인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임.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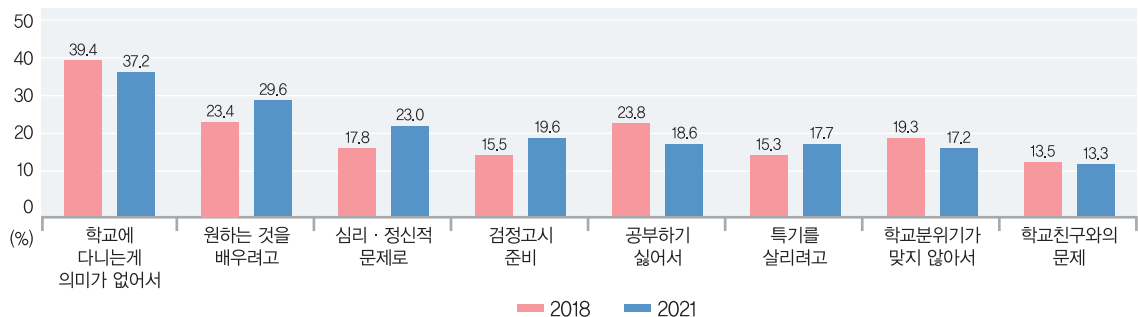
- ▶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수는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매년 5만 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증가 추세를 보였음. 코로나19 확산 시기 원격교육이 보편화되면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2021년 2월말 기준)(그림 1), 등교가 확대되면서 학업중단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22년 통계(2023년 2월말 기준)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이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조기 유학을 위한 해외출국이 다시 시작되고, 또 등교가 일상화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학업중단 상황으로 돌아갔기 때문으로 추정됨.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2023년 2월말 기준). <https://kess.kedri.re.kr/index>에서 2023.09.08. 인출. 위의 링크에서 2016년부터 2022년 학업중단자 수 검색

[그림 1]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추이(2016~2022년)

- ▶ 학교 밖 청소년을 둘러싼 변화양상은 이러한 양적 증가뿐 아니라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2018년과 2021년에 실시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조사결과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심리정신적 문제로', '검정고시 준비'를 사유로 학교를 그만둔 비율이 2018년 조사결과에 비해, 대체로 약 4~5%p 증가했으며,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응답률은 5.2%p 감소하였음(복수응답)(그림 2).



\* 출처: 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서고운(2021),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44의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

주: 복수응답 문항으로 그 중 10% 이상의 응답을 보인 항목에 대해서만 그래프로 제시함.

[그림 2]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를 그만둔 사유(2018,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이러한 변화양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물리적으로 학교체계에서 분리되면서 학교에서 가능했던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인 취약성 측면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학교에서 경험했던 유·무형의 많은 자원으로부터 동떨어지면서 많은 부분 취약성과 결핍을 겪게 되고, 또래 학생 청소년에게는 당연시되는 학교로부터 제공되는 교과학습과 같은 학업 부문과 신체활동과 급식 등을 통한 건강측면, 그리고 또래관계로 인한 사회적 발달측면, 아울러 교사로부터의 여러 차원의 지원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 ▶ 본 연구는 이렇게 학령기 연령대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와 특성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 또 학교체계와의 분리 후 결핍을 경험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음.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저해할 수 있는 취약성/불리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둘째,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한 결과와 이에 따라 더욱 심화된 문제점들을 조명하고자 하였음.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취약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기초로, 근거에 기반한 자립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2. 연구방법

- ▶ 문헌연구: 학업중단 학생 현황 행정통계 검토, 취약성 및 권리기반 접근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정책/행정자료 검토
- ▶ 양적연구: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원자료에서 취약성/불리함/어려움 및 지원관련 변수를 선별하여 2차 자료 분석 실시(기술분석 및 다변량 분석)
- ▶ 질적연구: 학교 밖 청소년 3개 집단(집단A: 20대 중반 성인기, 집단B: 10대 후반~20대 초반 성인기 이행기, 집단C: 10대 후반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실시 및 비교분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경험이 없는 오랜 질적 자료가 축적된 집단A 종단자료 분석(구성주의적 근거이론 접근 분석) 수행
- ▶ 전문가 의견조사 및 현장실무자 조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1차 정성조사, 2차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현안 분석과 정책과제/방향성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 도출(AHP 및 Borich 요구도 분석 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실무자 10명을 대상으로 2개 집단 FGI 실시
- ▶ 이외에, 연구내용과 2차 자료 분석, 면접조사내용 등 검토를 위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 질적자료 분석결과와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추진하였고, 조사내용 협의를 위한 정책연구실무협의회와 지역사회 현장 지원에의 합의 논의 등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음.



[그림 3]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 3. 연구결과

#### ▶ 2차 자료 분석 결과

- 2023년 기준 가장 최근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대규모 조사인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2차 자료를 분석하였음
  - \*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검정고시 접수장에서 수집된 802명의 데이터(가중치 미적용)를 제외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단기청소년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미인가대안학교 이용 및 소속 청소년 2,489명의 조사결과로, 학교를 그만둔에 따른 개인적(심리·정서·사회, 학업, 진로 등), 환경적(제도적) 취약한 측면이나 불리함, 어려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들을 선별하여 기술 분석과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결과,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지지가 낮은 집단의 경우 심리·정서·신체적으로 더욱 취약하였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 더 불이익과 어려움을 경험하였음.
  - \* 자아존중감, 우울과 불안, 자살 생각 등은 여자청소년,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 경제수준/부모의 지원이 낮은 집단에서 더 부정적이었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 불이익/어려움을 경험한 경우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였음. 기관이나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을 때 과제중/비만 비율이 높았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낮았음.
-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어려움을 더 적게 경험하였음.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를 그만둔 이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지원받기까지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을 더 경험하며, 학교를 그만둔에 따른 지식습득기회 감소를 후회하였음.
  - \*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고, 부모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기관/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을 때, 진로직업태도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음.
- 학교를 그만둘 당시 상담자가 있는 경우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기관 및 서비스 이용 경험 응답이 더 많았고, 학교를 그만둔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친구 사귀 기회 감소하였음.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계획 유무와 진로결정시기,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기관 및 서비스 이용 경험에도 차이를 나타냈음.

-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짧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 불이익이나 어려움 경험이 없을 때 진로결정시기가 당겨졌으며, 학교를 그만둔 당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받기까지 기간이 짧았음.
- 다변량분석 결과에서도 경제적 수준, 부모 지원 수준, 학교 성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읍면리에 거주하거나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경우 진로결정 여부와 진로직업태도에서 더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음.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진로탐색체험, 직업교육훈련, 고민상담 제공 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 \* 여자청소년들의 진로관련 지원(학습/진로멘토링, 진학정보제공 진학입시상담, 진로탐색체험 등) 요구가 남자청소년보다 더 많았고, 연령대가 낮고 부모지원/학업성적이 낮을 때 학습 및 진로 관련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음.

####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3개 집단 심층면접조사 결과

##### [질적항단자료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세 개 집단\* 심층면접조사 결과, 진로/진학/취업준비에서의 어려움, 심리사회적 취약성 등은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집단별로 학교를 그만둔 이유, 지원경험과 학교를 그만둔 직후의 경로, 학교를 그만둔 경험에 대한 평가에는 차이를 보였음.
- \* 집단A: 2012년 이후 학교를 그만둔 현재 20대 중·후반 성인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음.  
집단B: 2020년 전후 학교를 그만둔 현재 10대 후반~20대 초반 청소년으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음.  
집단C: 가장 최근 학교를 그만둔, 대부분 10대 후반 청소년으로 본격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 집단A는 20대 중후반의 성인으로 대부분 직장인이 되면서 자립한 것으로 보임. 일부 결혼/유자녀 상태였음.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는 학교에서의 자퇴 권유, 친구와의 갈등, 학교분위기 등이 대부분이었고, 적극적인 진로 모색 이유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음. 학교를 그만둔 이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진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진로준비 및 자립과정에서 개인적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한 사례가 많았음.
- 집단B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에 복귀한 사례도 있었으며, 아르바이트 중인 청소년들도 많았음. 이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친구관계의 어려움과 대안적인 진로 탐색이 주를 이루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본격적으로 받음에 따라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보였음.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였음.
- 집단C는 가장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로 대부분은 현재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학교를 그만둔 주요 이유도 대학 입시 준비와 학교에서 배울 것이 없다는 등이 다수였음.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본격적인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B와 C는 진로적성 탐색 및 상담, 실질적인 입시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전반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감, 불안감, 위축감,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관찰되었고, 학교 친구 /또래 문화 등 사회·문화적 자본 취약성이 도출되었음. 또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으로 자신을 입증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세 집단의 면접조사결과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그림 4와 같음.

	학교를 그만둔 이유	지원 경험	현재 하는 일	평가/감정*
<b>집단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대 중후반</li> <li>• 학교를 그만둔 시기: 약 2012~2015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일 수 부족 자퇴</li> <li>• 학교생활 실증</li> <li>• 공부에 적성에 안맞음</li> <li>• 집단 따돌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학교</li> <li>• 취업성공패키지</li> <li>• 꿈드림센터 검정고시 지원(면접참여자 10명 중 1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인 : 배송업, 대기업 공장, IT회사 등 정규직, 간호조무사, 보안업무, 아르바이트, 육아, 대학원 재학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족감/긍정평가</li> <li>• 시간이 경과하면서 후회 증폭</li> <li>• 양가적 감정, 수용 노력</li> </ul>
<b>집단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대 후반~20대 초반</li> <li>• 학교를 그만둔 시기: 약 2018~2021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틀에 짜여진 학교생활, 학교의 필요성 못느낌</li> <li>• 친구/인간관계 어려움</li> <li>• 진취적 진로탐색위해</li> <li>• 대학진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드림센터 : 검정고시, 인턴십, 학원비, 급식, 체험/문화활동, 근로교육 등</li> <li>• 내일이룸학교</li> <li>• 청소년센터, 대안교육기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생(복교)</li> <li>• 대학생, 대학 휴학</li> <li>• 아르바이트</li> <li>• 학원 수강</li> <li>• 대학입시 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족도 높음</li> <li>• 꿈드림센터지원으로 후회 없음</li> <li>• 개인생활관리 힘들</li> <li>• 시간 허비 후회</li> </ul>
<b>집단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대 중후반</li> <li>• 학교를 그만둔 시기: 2022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배울 것이 없음</li> <li>• 학교 공부 무의미, 시험 압박</li> <li>• 원하는 교육과정 없음</li> <li>• 또래관계 어려움</li> <li>• 대학진학 준비에 더 유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드림센터 : 검정고시, 진학상담, 대입 대비반 수업, 인턴십/직업체험, 자격증 취득 지원, 급식/건강검진, 문화예술체험, 동아리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입시 준비(면접 참여자 10명 중 8명)</li> <li>• 아르바이트</li> <li>• 직업훈련</li> <li>• 인턴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높은 만족도</li> <li>• 더 빨리 그만뒀어야 (모의고사 성적 상승 기대)</li> <li>• 후회</li> </ul>

주: \*표시는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의미함.

#### [그림 4]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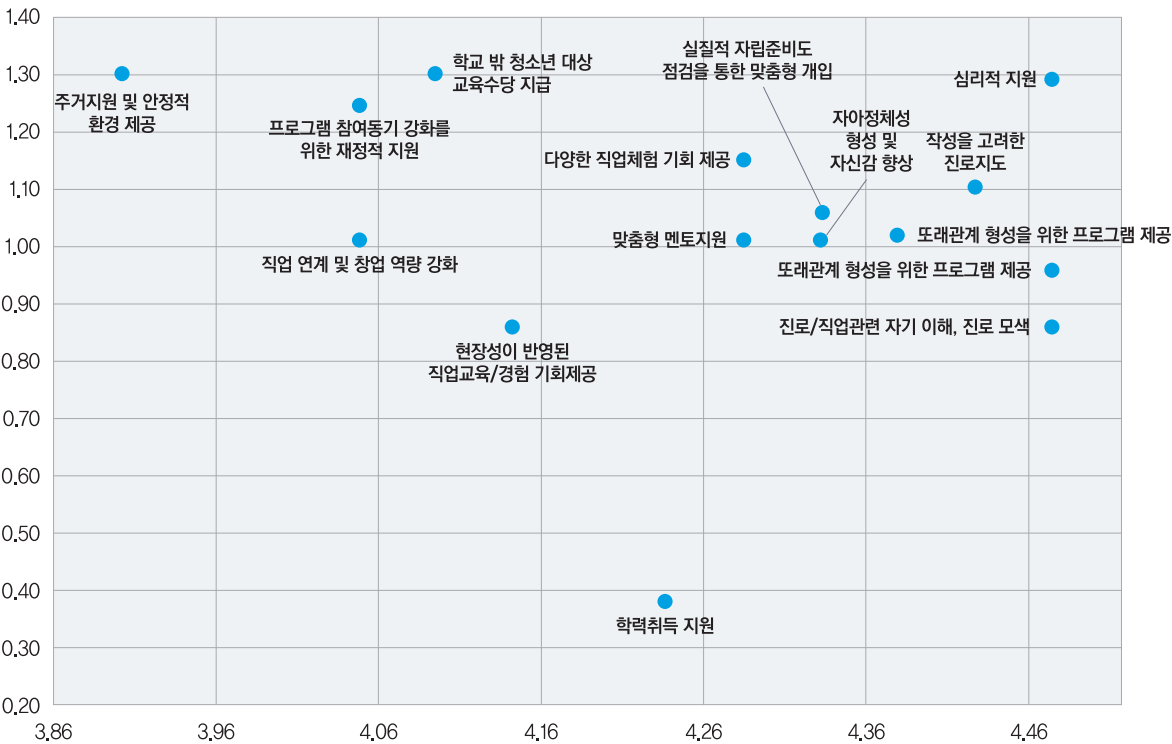
##### [질적종단자료 분석]

- 집단A에 대한 질적종단자료 분석 결과, 이들은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진학, 진로, 구직과정에서, 또 또래관계 경험부족에 따른 소외감/부정적 사회적 인식 등의 결과로 피로감/좌절을 경험하였음.
- 분석 대상 사례는 크게 진로포부가 강하고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우, 진로포부가 강하고 취약성 인식이 낮은 경우, 진로포부와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모두 낮은 경우로 구분하였음. 각자 취약한 부분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였으나 주로 개인적인 노력이나 현실 수용, 회피 등이 많았음.
- 취약성 인식과 대응과정에서 학업중단의 의미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또 현재 직업 만족도에 따른 상대적 평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었으며, 이에 대한 성찰과 수용도 유동적으로 나타남.

#####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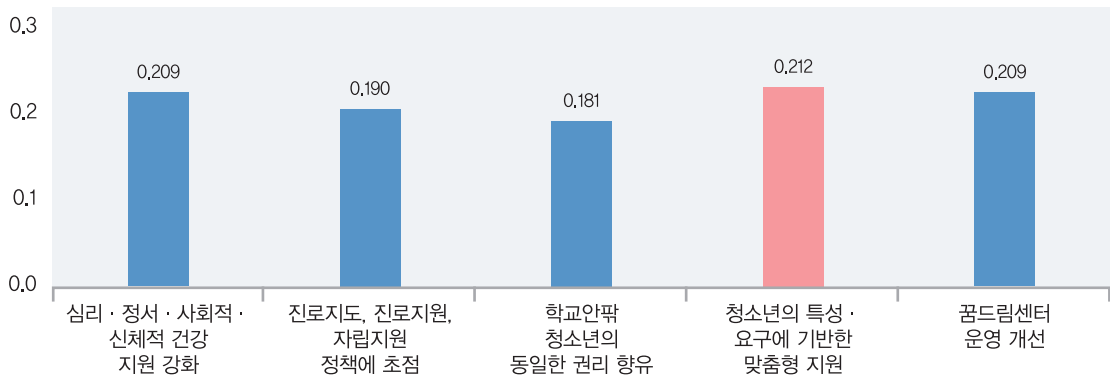
-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현안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역량 증진 기회 부족, 정신건강 문제 증가, 학교/가정에서 모두 보호·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다변화, 은둔·고립 성향 증가 등이 도출되었음.
- 가장 취약한 분야로, 제한된 사회적 경험·대인관계로 인한 사회성 발달과 인간관계기술 부족, 소속감 부재, 학교/가정에서 보호·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제도권 공교육을 통한 보편적 복지 소외가 제시됨.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보리치(Borich) 요구도 분석결과, 심리적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교육수당 지급, 주거지원 및 안정적 환경 제공,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 순으로 도출됨.



[그림 5]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방안들에 대한 Borich 요구도 결과 도식

- 중점과제 우선순위(AHP) 분석 결과, 심리적 지원, 진로/학업 지원, 사회성 향상 기회 제공,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원방식 개선 등의 순으로 도출됨.
- 지원에서의 아쉬운점으로 상담 전문성 부족, 직업훈련 및 창업연계 내실 부족, 대학입시 지원 미흡,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부족, 문화활동 및 전용공간 지원 부족 등이 제기되었음.
- 정책 방향성 우선순위(AHP) 분석 결과, 청소년의 특성/육구 기반 맞춤형 지원, 심리·정서·사회적·신체적 건강 지원 강화, 꿈드림센터 운영 개선, 진로지도·진로지원·자립지원 정책예의 초점, 학교안팎 청소년의 동일한 권리 향유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 향후 지원정책 방향성 우선순위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향후 역할과 기능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례관리 기능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심기관으로서 지역 네트워크 기능 확대, 지역자원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의 연령·특성·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에의 초점,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습득 지원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남.

#### ▶ 현장실무자 FGI(초점집단인터뷰) 결과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장실무자 2개 집단 FGI 결과, 최근 학교 밖 청소년들은 뚜렷한 진로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장실무자를 통해 보고된 취약성은 심리·정서적 어려움, 일상생활관리의 어려움, 소속감의 결여, 활동공간 부족, 편견과 차별, 진로탐색과 진로준비의 어려움 등이었음.
- 취약성 극복 방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전문심리상담 지원, 균등한 교육여건 보장,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요구 맞춤형 진로지원, 학교 밖 현장 환경 개선 등이 제시되었음.

## 4. 정책제언

- ▶ 문헌 고찰,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행정통계 검토,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와 현장실무자 FGI 결과를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차원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차원으로 구분하면,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특성의 다변화, 학교 밖 청소년의 저연령화, 심리·정서·사회적,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이슈가 여럿 도출되었음. 환경적 차원으로는 학교에서 가능했던 모든 보편적 복지에서의 소외, 성인기 이행 및 자립과정에서의 진로탐색, 진로준비, 취업과정에서의 불리함 등의 현안이 제시되었음.
- ▶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① 학교 밖 청소년의 전인적 건강 및 성장 지원 우선, ②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기반 맞춤형 지원, ③ 직업역량강화 이전 진로개발역량 우선 강화, 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정체성·방향성 검토, ⑤ 학교안팎 청소년의 동일한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와 같이 5개의 정책 방향성을 도출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내용, 전달체계, 환경적 차원 3개 영역의 12개 정책과제를 그림 7과 같이 제시하였음.



## 비전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

### 정책 방향

1. 학교 밖 청소년의 전인적 건강 및 성장 지원 우선
2.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기반 맞춤형 지원
3. 직업역량강화 이전 진로개발역량 우선 강화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정체성 · 방향성 검토
5. 학교안팎 청소년의 동일한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 정책 과제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 단계별 심리 · 정서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사회자본) 강화 기회 및 지원 제공
-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 취약성 극복
- 학교 대비 학교 밖 진로지원 수준 제고(체계화 · 전문화)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보편적 경제적 지원 확대
- 대학입시 지원 전문성 강화
- 진로개발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창업역량 강화

#### [자립지원 전달체계 및 환경적 차원]

-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다변화에 따른 지원 방향성 합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꿈드림)의 정체성 및 역할 재고
- 꿈드림센터 역량 강화 및 환경 개선
- 학교안팎 청소년에 대한 동등한 보편적 지원 권리 보장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과 자립을 위한 지원

### 현안 분석

- ▶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다변화, 전연령화, 정신건강 문제 증가, 사회적 관계 역량 부족, 은둔/고립 성향 증가, 대학진학 희망 사례 증가
- ▶ 학교에서 가능했던 보편적 복지에서의 소외, 진로탐색/진로준비/취업과정에서의 불리함,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가중된 취약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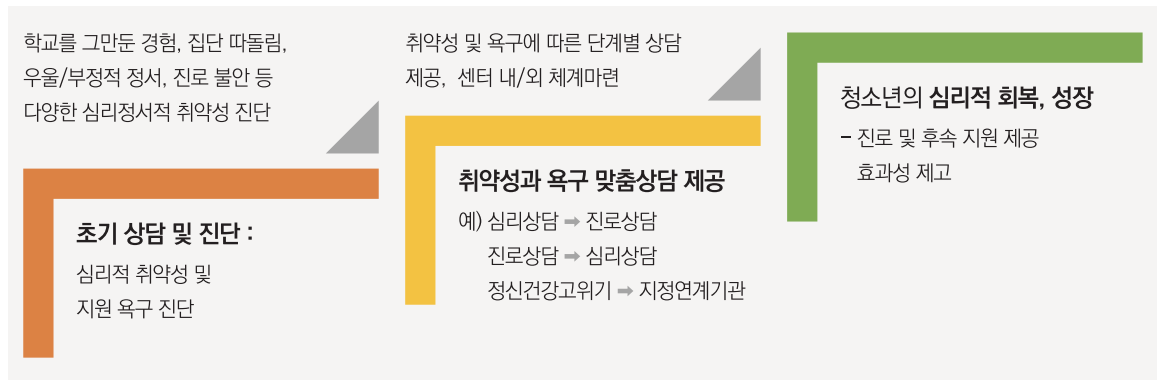
### [그림 기]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방향성 및 정책과제

- ▶ 영역별로 제안된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들을 살펴보면, 먼저 ‘1.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내용 영역의 정책과제로,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 단계별 심리·정서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사회자본) 강화 기회 및 지원 제공,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 취약성 극복, 학교 대비 학교 밖 진로지원 수준 제고(체계화·전문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보편적 경제적 지원 확대, 대학입시 지원 전문성 강화, 진로개발·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창업역량 강화를 제안하였고, 이에 관련된 세부추진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음.

[표 1] 1.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영역의 정책과제·세부추진과제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내용
1-1.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 단계별 심리·정서 지원	1-1-1.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 단계별 상담 지원
	1-1-2. 정신건강 고위기·취약 청소년 지원 전문성 강화
1-2.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사회자본) 강화 기회 및 지원 제공	1-2-1. 은둔·고립·소외감 등 사회적 취약성 탈피를 위한 또래와의 교류 기회 제공
	1-2-2.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대인관계 기술·의사소통 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1-3.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 취약성 극복	1-3-1.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신체활동 기회 제공(지역 내 스포츠클럽 참여 등)
1-4. 학교 대비 학교 밖 진로지원 수준 제고(체계화·전문화)	1-4-1. 진로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 조항 신설
	1-4-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체계적 맞춤형 진로설계 및 진로준비 지원
	1-4-3. 지역 내 전문기관(진로체험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진로탐색·진로체험 기회 확대
1-5.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보편적 경제적 지원 확대	1-5-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당 확대
	1-5-2. 취약환경 청소년 대상 경제적 지원 확대
1-6. 대학입시 지원 전문성 강화	1-6-1. 대학입시 지원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퇴직 교원 활용 등)
1-7. 진로개발·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창업역량 강화	1-7-1. 진로개발·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접근성 강화
	1-7-2. 학교 밖 청소년의 창업역량 강화

※ 정책과제 '1-1.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 단계별 심리·정서 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8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그림 8]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 측면을 고려한 단계별 심리·정서 지원

▶ 'II.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전달체계' 영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다변화에 따른 지원 방향성 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꿈드림센터)의 정체성 및 역할 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량 강화 및 환경 개선을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관련된 세부추진과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시하였음.

[표 2] II.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전달체계 영역의 정책과제·세부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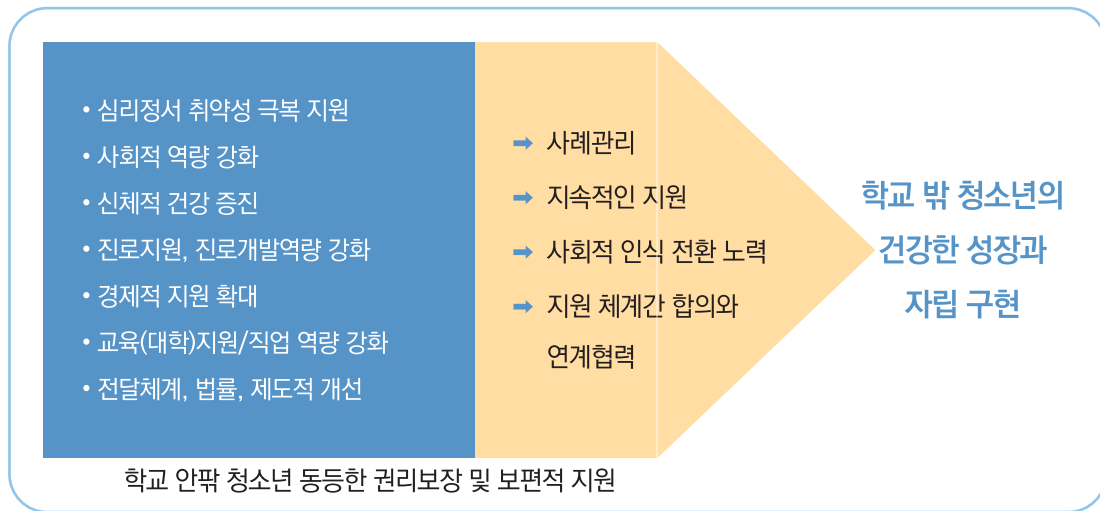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내용
II-1.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다변화에 따른 지원 방향성 합의	II-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성에 대한 다체계간 합의 도출
II-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꿈드림센터)의 정체성 및 역할 재고	II-2-1.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범위 논의·재설정
	II-2-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과 사례관리 기능 강화
	II-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심기관으로서 꿈드림센터의 지역 네트워크 기능 확대
II-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량 강화 및 환경 개선	II-3-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량 강화
	II-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종사자 처우 등 직무수행 환경 개선

▶ ‘III.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환경적 차원’ 영역에서는 학교안팎 청소년에 대한 동등한 보편적 지원 권리 보장,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제안하고 관련된 세부추진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표 3] III.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환경적 차원 영역의 정책과제·세부추진과제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내용
III-1. 학교안팎 청소년에 대한 동등한 보편적 지원 권리 보장	III-1-1. 학교 재학 여부, 거주지 관계없는 동등한 지원 제공
	III-1-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향적 시선 확산·홍보
III-2.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III-2-1.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 강화 및 지원 접근성 확대

- ▶ 결론 및 논의: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을 위해서는 학교 안팎 청소년의 동등한 권리보장 및 보편적 지원이라는 방향성을 토대로, 심리사회적, 신체적 건강과 진로지원, 경제적 지원과 대학진학 및 직업역량 강화, 전달체계, 법률, 제도적 개선 등이 수행되어야 함.
- ▶ 이러한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지원 이후의 사례관리와 지원의 지속성,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수행하는 지원체계 간의 합의와 연계·협력이 전제되어야 함.
-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과 자립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9와 같음.



[그림 9] 연구결과 요약

#### 참고문헌

김희진, 조혜영, 한지형 (2023).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연구보고 23-기본 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서고운 (2021).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2016-2022)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3년 9월 8일 인출.